

송신기술

문 정 철
문화방송 남산송신소장

1. 라디오 방송

가. 경성 방송시대

1924년 11월부터 시험방송이 실시된 우리나라의 무선 방송은 1926년 11월 30일에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다음 해인 1927년 2월 16일 오후 1시를 기해 일본 호출부호인 JODK, 주파수 690KHz, 공중선 전력 1KW로 정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8년부터 시작된 주변국가들의 출력 증강으로 외래전파의 도래가 심화되고 방송구역이 작아 수신가구 증가율이 저조하여 수신료 수입이 부진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게된 경성방송은 이의 해결방안으로 출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일본어 방송과 한국어 방송을 별도로 실시하여 수신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대전력 2중 방송계획을 수립, 연희 송신소를 건립하고 10KW송신기 2대를 동경전기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제 1방송(900KHz, 일본어)과 제 2방송(610KHz, 한국어)을 1933년 4월 26일 실시하게 되었다.

35년부터는 부산방송을 시작으로 지방 방송국이 개국되기 시작하였는데 중앙방송의 수신상태가 불량하여 양질의 방송을 할 수 없었다. 또한 태평양 전쟁의 시작으로 42년 4월 27일에는 전파관제가 실시되어 제 2방송인 한국어 방송은 중단되고, 제 1방송인 일본어 방송이 10KW 출력을 1KW로 감력 운행함에 따라 중계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지방국 중계 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연희 송신소에서 5KW출력의 단파(2.510MHz)방송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중파 송신의 성장

태평양 전쟁으로 실시되었던 전파관제가 1945년 8월 23일부로 해제되어 주파수 및 송신출력이 전파관제 이전으로 환원되었고, 45년 9월 9일에는 일본어 방송인 제 1 방송이 폐지되고 970KHz의 한국어 방송이 제 1방송이 되어 단일 방송을 실시하였다.

1947년 10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일본 호출 부호대신 “HL”의 우리 호출부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50년 10월 19일에 ITU에 가입하였으며 1948년 8월 4일에는 연희 송신소에서 7.935MHz 단파 방송을 5KW 출력으로 송신하여 지방국 중계 수신상태를 개선하였다.

1950년에는 6.25 동란으로 부산으로 이전한 중앙 방송국은 부산국 시설로 업무를 계속하다 9월 28일 서울 수복 시 돌아와 보니 정동 연주소 시설은 전파되었다. 다행히 연희 송신소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어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1.4 후퇴시 “거부 조치”에 의해 자체 파괴하여 초기의 연희 송신기는 방송 18년만에 수명을 마치게 된다. 1953년부터는 일본에서 도입된 10KW 중파 송신기와 10KW 단파 송신기로 방송을 재개하였으며, 55년 8월 13일에는 미국 웨스팅 하우스가 제작한 100KW의 공냉식 송신기가 도입되어 대출력 시대의 막을 열었다.

또한 6.25 동란은 대북 방송의 필요성을 일깨우게 되어 1956년 3월 1일에는 수원에서 100KW의 중파 방송을 실시하였고, 62년에는 대북 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남양 송신소를 건립하여 스위스로부터 구입한 증냉식 500KW 송신기로 하트 모양의 지향성 특성으로 송출하여 북한, 만주, 일본등의 지역이 가청권에 들게 되었다.

1966년 4월 4일에는 970KHz, 500KW로 송출하던 남양 송신소에서 주파수를 710KHz로 변경하여 제 1방송을 실시하고, 연희 송신소는 제 2방송만을 실시하면서 100KW 송신기를 대구 방송국 경산 송신소로 옮겨 내륙 지방의 수신상태를 개선하였다.

70년대들어 연회 송신소 일대가 도심화 되어감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소래면에 500KW 대전력 송신소를 건립하여 71년 3월 31일부터 710KHz로 제 1방송을 실시하고, 남양 송신소에서는 970KHz로 대북 방송을, 수원 송신소가 600KHz로 제 2방송을 실시하게 되니 73년 9월 연회 송신소는 40년의 막을 내리게 된다.

74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방송과 전파 방해 및 중공, 소련, 일본등의 대출력 전파에 의한 국내 약전계 수신 지역의 전파 장애를 극복할 목적으로 시작된 난시청 해소 작업은 75년 9월 16일 확정된 난시청 해소 3개년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며, 중출력이하의 중파부터 시설하기 시작하여 단파 방송, 대전력 방송시설등으로 마무리 되었다.

국내 최대 출력의 당진 송신소는 1979년 10월 26일 출력 1500KW, 주파수 972KHz로 사회교육방송을 시작하므로써 북한 및 중공, 소련에서까지 우리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진 송신소 건립시 강력한 전파에 의해 인접지역에 위치한 체신부 합덕 전파 통제소에 수신 장애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지향 패턴을 조정하게 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또한 1975년 9월 10일 준공하여 국내 최대의 단파 송신기지가 된 김제 송신소에서는 대전력 단파 송신을 개시하므로써 유럽, 미주,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호주등 전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시설로는 단파 송신기 7대, 중파 송신기 4대를 보유하여 1770KW의 총출력을 송신할 수 있으며 공중선 시설수는 고이득 지향성 안테나 13조와 무지향 안테나 8조로 안테나 숲을 이루고 있다.

1975년 10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국제 전기통신 연합)의 제 1지역(유럽, 아프리카) 및 제 3지역(아시아, 태평양) 중·장파 방송 주관청 회의에서는 신생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방송 주파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당시 10KHz 간격으로 분배하던 채널을 9KHz 간격으로 분할하기로 하고, 1978년 11월 23일 GMT 0시를 기해 시행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존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재할당하게 되었다.

다. 중파의 민영 상업 방송

문화방송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연주소를 정하고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에 송신소를 건립하여 1961년 12

월 2일에 10KW 출력으로 방송을 개시하게 되는데, 최초의 민영 상업 방송인 부산 문화방송과 제휴하여 네트워크국을 갖게 되며 66년 1월 23일에는 문화방송 기술진이 자체 제작한 50KW 송신기로 출력을 증강하였으며, 또한 63년 8월 대구 문화방송 개국을 시작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방송망은 64년에 광주 및 대전 문화방송, 65년에 전주 문화방송, 68년 울산, 진주, 강릉, 춘천, 목포 및 제주 문화방송, 70년에 마산, 여수, 안동, 원주, 청주 및 충주 문화방송이 개국되고, 71년에 삼척 및 포항 문화방송이 개국되므로써 전국 20개 네트워크국을 형성한 막강한 방송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80년부터는 송신소 주위가 도심화 되었기 때문에 90년대부터 이전 준비를 시작하여 1994년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토당 송신소는 북방으로 20km 이전된 점을 감안하여 남방으로 3dB 지향을 준 지향 안테나로 설계 시공되었다.

1963년 4월 25일에는 동아방송이 오류동 송신소에서 주파수 1230KHz, 출력 10KW로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일본, 소련등의 야간 전파 월경으로 66년 12월 4일부터 주파수를 790KHz로 변경하였고, 68년에는 출력을 50KW로 증강하였으며, 1972년에는 폭우로 인한 침수로 26시간 39분간의 불행스러운 정파사고를 경험하였다.

1991년 3월 20일에 개국된 신설 방송사인 SBS는 KBS 시설(전 동아방송)을 임차하여 위탁 운영하다가 1993년 7월 20일부터는 경기도 고양시에 일산 송신소를 신설하여 국내최초의 AM 스테레오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1964년 5월 9일에는 서울에서 동양방송이 개국되어 주파수 1380KHz, 출력 20KW로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인접지역에 있는 동아방송에 전파유도 장애를 주어 동년 6월 28일에 주파수를 640KHz로 변경하였고, 68년에는 출력을 50KW로 증강하였으며 69년 군산 서해 방송, 71년 광주 전일 방송과 프로그램 제휴를 하게 되었다.

2. FM 방송

FM방송은 주파수 변조 방식의 새로운 전파 매체로 1941년 5월 미국의 내슈빌에서 최초로 개시했는데, AM이나 TV에 비해 음질이 깨끗하여 제 3의 전파로써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방송

기술인들이 모여 그해 7월 30일 서울 FM방송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준비를 시작했으나, 재정 사정으로 개국이 늦어지는 동안 주한 미군 방송인 AFKN이 1964년 10월 1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기존의 중파 방송국에서 FM을 병행 송신하기 시작했다. 서울 FM방송은 결국 1965년 4월 24일에야 주파수 89.1KHz, 송신 출력 1KW로 방송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방송 사상 최초의 FM방송국이 되었다.

그러나 운영재원을 광고비에 의존하려 했던 서울 FM방송은 당국이 광고 방송을 허가하지 않아 1966년 4월 4일 동양방송에 양도되었다. FM을 인수한 동양방송은 우선국 허가가 승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았고, 법정 승계가 끝난 8월 15일에야 동양 FM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1970년 2월 1일부터는 스테레오 방송을 시작하여 청취자들에게 현장감 있는 방송을 서비스하여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

그후 1970년 4월 20일 부산 문화방송에서 FM방송을 실시하였고, 1971년 9월 19일에는 서울의 문화방송이 91.9KHz, 출력 1KW의 FM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1979년 4월 1일에는 KBS가 FM방송을 개국하면서 지방국에 FM방송망을 확장하기 시작하였고, 문화방송도 1983년부터 지방국 FM방송망 확장을 시작하여 본, 계열사 20개사가 모두 음악 FM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특수 목적의 방송사가 다수 출범하게 되는데 모두 FM방송으로 허가되어 90년 4월 15일 평화방송, 90년 5월 1일 불교방송, 90년 6월 11일 교통방송이 개국하여 남산의 종합 전파타워에 1시스템의 안테나를 시설하고 3사가 공용하는 방식으로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

3. TV 방송

가. TV 방송의 탄생

우리나라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인 1925년 영국의 베어드가 세계 최초로 TV를 발명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는 TV에 관한 연구 및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어 1923년 영국의 BBC가 최초의 실험방송을 실시했으나 당시는 주사선 30분 방식의 TV였다. 이어 1935년 독일에서 주사선 180분 방식으로 최초 정규 방송을 실시하였

으며, 1941년에 이르러서야 미국에서 주사선 525방식의 TV방송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TV 방송은 미국의 RCA사가 수상기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RCA 배급회사(KORCAD)를 설립하고, 1956년 5월 12일 종로구 관철동에서 채널9 출력 100W의 전파를 발사한 것이 최초이다. 동년 6월 1일부터는 격일로 2시간씩 저녁에 정규방송을 실시했는데 가시청구역은 서울중심 16~24km 정도였고 수상기 보급 대수도 300대 미만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국내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했고 수상기 가격이 너무 고가여서 수상기 보급이 확대되지 않아, 결국 KORCAD는 개국 1년만인 1957년 5월에 한국일보에 양도되어 대한방송주식회사 DBS로 개편되었다.

동년 9월에는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해 AFKN-TV가 채널3으로 TV 방송을 개시하여 수상기 보급이 증가 추세였는데, 1959년 2월 2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모든 시설이 불에 타 DBS는 그해 3월 1일부터 AFKN-TV의 도움으로 매일 저녁 30분간씩 임시방송을 하다 61년 10월 15일 문을 닫았고, 채신부는 회수된 채널 9를 KBS에 허가해 주어 본격적인 TV시대가 예고된다.

KBS는 1961년 12월 31일 채널9, 출력 2KW로 TV방송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남산 송신소와 연주소간 LINK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닌 동축 케이블이었다. 1966년부터는 금성사가 흑백 TV수상기를 제작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수상기 보급대수는 더욱 증가되었고 KBS는 TV방송망 확장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1966년 6월 천안 흑성산 중계소 설립을 출발로 66년에만 대전 식장산, 대구 금오산, 광주 무등산, 전주 미륵산에 시설되었고 67년에는 춘천권인 용문산과 부산의 영도 중계소를 설립하였다. 71년에는 강원 패방산, 포항 조항산, 삼척 함백산, 원주 백운산, 제주 건월악에 시설되어 전국 주요도시를 가시청권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1972년에는 서울의 불광동에 출력 50W의 무인 TV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무인TVR에 의한 난시청 해소 작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1971년에는 남산 정상에 종합 전파탑이 건립되어 MBC, TBC등과 함께 KBS도 전파탑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KBS는 출력을 50KW로 증강하게 되어 서울 일원에 국한되었던 방송구역을 서울 경기 전역과 강원, 충청북 일부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나. 상업 TV방송

동양 텔레비전 방송은 1962년 12월 31일 체신부로부터 서울국과 부산국의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외화 사용억제 정책으로 외국 장비도입이 불가능하여 무선국 가허가를 1년 연장하고, 국내에서 TV송신기를 제작하려는 계획하에 출력을 서울은 2KW, 부산은 500W로 변경 허가받아 64년 2월 1일 부터 설립준비에 착수했다.

서울국은 64년 12월 7일에 채널7로, 부산국은 동년 12월 12일에 채널9로 방송을 시작한 TBC TV는 72년 4월 4일에 호출부호를 HLCE에서 라디오와 같은 HLKC로 바꾸고 출력을 증강하였다. 동양 텔레비전 부산국은 당시 부산지역이 일본 TV의 가시청권내에 있었기 때문에 전파월경에 따른 문화침범을 막아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국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TV송신방식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수평 편파방식이 아닌 수직편파방식이고, 부산 지역의 시청자들은 일본 전파를 수신할 목적으로 수신 안테나를 수직으로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 상업 방송인 동양 TV 부산국도 시청자 확보를 위해 부득이 수직 편파로 방송을 송신하기 시작 했으며, 1967년 12월 30일 KBS 영도 중계소가 설립되어 우리나라 표준 방식인 수평편파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1970년 1월 24일 개국한 MBC-TV부산국도 기존의 시청자를 의식 수직 편파로 방송을 개시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KBS-TV만이 수신감도가 낮아 시청자들로부터 홀대를 받게 되었다. 결국 많은 논쟁끝에 72년말 부산지역 TV3국의 출력을 똑같이 5KW로 균형을 맞추고 편파형식도 수평편파로 통일함과 동시에 채널배당도 서울국과 같은 KBS는 채널9, MBC는 채널11, TBC는 채널7로 변경하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1961년 12월 2일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문화방송은 66년 6월 22일 TV방송국 가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장비도입이 지연되어 68년 12월 31일에야 시험방송을 할수 있었고, 매일 오전 오후 각 30분씩 6개월동안 충분한 시험을 실시한후 1969년 8월 8일부터 정규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는데 송신기는 영국의 PYE사로 부터 도입되었고 출력 2KW, 채널11이었다.

또한 80년 12월 22일 실시한 칼라 TV방송은 수신 전계강도가 높아야 양질의 시청을 할 수 있어 송신출력을

50KW로 증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방 네트워크 구성은 1970년 1월 24일 부산 문화방송을 필두로 시작되어 7월 16일 대구문화, 8월 1일 제주문화, 8월 29일 광주문화가 개국되었고, 71년 4월 20일 개국된 전주 문화와 4월 24일 개국된 대전 문화방송은 국산 송신기를 도입 시설 하였으며, 71년 1월 25일 울산문화, 72년 6월20일 마산문화가 개국되어 9개의 1차 TV방송망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지방 중소 도시 주민들의 TV다채널 시청욕구에 의한 민원이 많아져 문화방송은 2차 지방국 TV방송망 확장사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83년에는 춘천, 청주, 강릉, 진주, 안동, 충주, 삼척, 포항등 지방 8개국의 TV방송망을 확장하고 84년에는 목포, 여수, 원주에서 TV방송을 송출하게 되어 본 계열사 20개국의 전국 TV방송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난시청해소를 위한 TV중계소 및 무인 TVR설치 사업을 80년대 중반부터 실시하여, 전국에 12개의 TV중계소와 164개소의 무인TVR을 시설하여 전국 인구대비 가시청 방송구역율 95% 수준으로까지 확장하였다.

SBS-TV는 1991년 3월 20일 KBS 개봉송신소의 792KHz 라디오 시설을 임차하여 중파방송을 시작하고 1991년 12월9일 TV방송을 개시하게 되는데, 당시 서울의 종합전파탑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독자적으로 안테나를 취부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장소를 선택하기에는 수신자 측면에서 안테나의 방향을 이원화해야되는 문제점등 민영 상업방송으로써의 난제에 봉착되어 결국은 KBS-1, 2 FM과 MBC-FM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공중선 설비를 교체하여 4매체가 공용하는 방식으로 개국하게 되었다.

개국후 타방송사와의 혼신 및 일부지역에서의 고스트등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나 SBS 기술진의 노력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95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에도 지역 TV방송이 개국하여 SBS-TV와 제휴하게 되므로써 전국 규모의 방송으로 성장했다.

다. TV 다중방송

음성다중방송은 TV채널의 6MHz 대역폭내의 주파수적 여유분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일본의 FM/FM 방식과 독일의 TWO 캐리어 방식이 대표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KBS와 MBC가 1년에 걸쳐 연구 및 실험과정 끝에 Two 캐리어 방식으로 결정하고, 한국형 기술기준을 확정한 다음 1985년 10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방송을 시작 2개국어 및 스테레오방송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TV 다중방송인 문자다중은 TV신호의 귀신 소거기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문자나 도형등의 정보를 기존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정치화상으로 송출하는데, 1974년에 영국의 BBC가 최초로 실험방송을 실시하였고 우리나라도 미국식 코드방식을 표준방식으로 선정하고 1990년 8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4. 교육방송과 T-COM 사업

우리나라 교육방송은 1951년 부산 임시정부 시절인 6월 28일 국영 중앙 방송국에서 매일 15분간씩 방송하던 것이 효시이나 62년 8월 19일 중단되었고, TV교육방송은 한국 최초의 상업 민간방송에서 65년 6월 1일부터 학교방송을 시작하다 그해 12월에 폐지하게 된다.

그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학교방송의 필요성을 인식 1963년 3월 11일부터 제1라디오를 통해 매일 1시간씩 다시 방송을 시작하고, 70년 5월 5일부터는 TV 교육방송도 재개되었으나 문교부의 전파사용료 및 제작비 부담문제로 73년 4월 9일 중단되기에 이른다.

T-COM(Tethered Communication)은 월남전 밀림지대의 통신수단으로 개발된 것인데, 고도 3000m 상공에 통신장비를 탑재한 기구를 줄에 매달아 띄워놓고 송신하는 견인식 기구 송신 시스템으로, 가시청범위가 넓어 경제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방송 TV 및 FM방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미국의 T-COM/Westinghouse사의 제의에 따라 시도된 것이다.

1973년 12월 9일 교육개발원은 충북 제천군 봉양면 주포리에 기구식 송신소 건설을 착수하여 TV 2개 채널과 FM 1개 채널을 방송하기 위해 1975년 12월 12일 최초의 전파를 발사하여 시험방송을 시작하였으나, 77년 2월 15일까지 강풍과 적설에 의한 대형사고가 5회에 걸쳐 발생하였기 때문에 송신시설에 대한 최종시험도 끝내지 못한 채 우리나라 기상조건에는 적합치 못하다는 결론을 짓고 계약사인 T-COM/Westinghouse사의 배상으로 종결

되었다. 결국 교육방송은 TV는 UHF채널로, 라디오는 FM지상파 방송으로 전국에 망을 형성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5. 송중계소 통폐합과 환원

1984년 12월 1일 정부는 국가기간 통신망 통합계획에 의거 전국에 걸친 KBS와 MBC의 송중계소를 통폐합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위탁 운영하게 된다. 통합운영의 논거로 효율적 인력관리와 운영비 절감등이 제시되었으나 4년여에 걸친 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 가운데 1988년 6월 1일 다시 방송사로 환원하기에 이른다.

문제점 하나 : 방송의 매카니즘상 제작과 송출이 불가분한 협력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연주소와 송신소가 각기 다른 회사로 분리되므로서 협조체제가 원활치 못함

문제점 둘 : 연주소와 송신소를 순환근무 하므로써 축적되는 상호보완적인 기술습득의 기회가 박탈되어 기술발전의 저해요인이 됨

문제점 셋 :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송중계소의 무인화를 고려치 않았음(무인화시 송중계소 운용은 연주소에서 하게됨)

문제점 넷 : 방송사 운용시보다 관리행정의 인원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 현업 기술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방송의 품질이 저하되고 현업 근무자들의 업무가 과중됨

문제점 다섯 : 4년여 기간의 운영결과 방송사에서 운영할 때보다 운영 비용이 200여억원 초과 되었음

문제점 여섯 : 직장문화가 서로 다른 KT, KBS와 MBC 출신 직원들간의 상호 배타적 불신풍조로 직장내 위화감이 팽배함

이와같이 통폐합과 환원을 경험하고난 지금도 방송의 기술적측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 학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송신공사인을 들고 나오는데 대해 방송 기술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6.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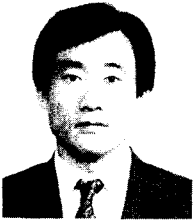
우리의 방송기술 60년사는 일제치하의 어려움속에서 출발하여 해방과 6.25 동란등 혼란기를 거치고 대출력 송신과 방송망 확장을 통하여 숙련되었으며 60년대 들어서는 FM, TV 등 다매체로 성장하고 상업방송과 특수목적 방송등의 등장으로 다채널화 되면서 성숙되어 왔으나 오늘 우리앞에 전개된 방송기술의 환경은 지금까지 변화되어 온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들어 케이블 TV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했

고 무궁화 위성의 발사는 위성방송 출현을 예고하여 다미디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고 각 미디어들간에 고품질과 다양한 정보 서비스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급속히 발전하는 전자기술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없애고 나아가서는 방송, 통신, PC 등이 대통합을 이루어 인쇄매체와의 구분마저도 불분명하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만큼 방송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통하여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문 정 철

1949. 출생
 1976. (주)문화방송 입사
 1991. MBC 방송기술인협회장
 현재 (주)문화방송 남산송신소장